發見된 狩獵文甎에서 野兎의 모습에서도 보았거니와(陳列品圖鑑第十一)、直接 이것과 構圖上으로 가까운것은 慶州南山里 長倉에서 發見된 平瓦側邊文樣에 左右對相으로 疾走하는 天馬의 모습이다。(新羅古瓦譜第一輯第十二圖의一) 그리고 日本의 正倉院의 木畫紫檀碁局의 側面 左側區劃中에서 三軀가 같은 方向으로 疾走하는 모습이 있는데 쭉 뻗은 四肢의 모습은 唐代畵風의 普遍된 手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。

統一期의 骨壺에서 우리는 楕圓形의 花文을 볼 수 있으며 특히 陳列品圖鑑第一輯에 紹介된 骨壺에서 여기의 花文과 꼭같은 型을 보며 또 肩部에 달린 四個의 獸首도 注意된다。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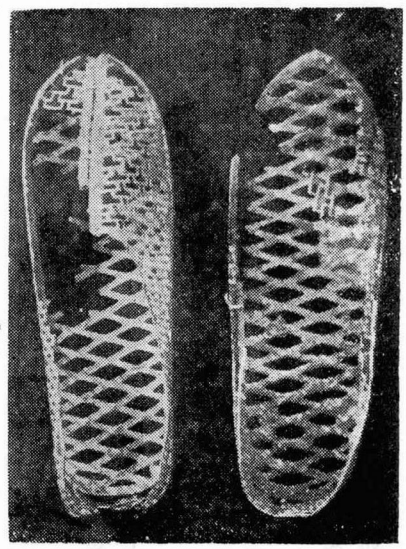
만약 이 土器를 推測한 바와 같이 方形 臺器 또는 几案類로 본다면 果然 어떤 用具이었을까 비록 土器일 망정 側面의 이와 같은 圖案의 素材와 手法은 正倉院의 豪華로운 碁局이나 雙六局과 처지는 바는 없는 것이며 또 크기에 있어서도 이것을 方形의 橫面으로 본다면 正倉院所藏品의 橫三一糎 高一六·七糎(이 土器는 側面 三五糎 高 一七糎)와 비슷한 點이 있는 것은 偶然의 一致라 할까

金銅履의 新例

黃 壽 永

一九六二年 十一月 梨花女大 博物館에서 蔣奎緖氏의 厚意로 調査한 金銅履一足이 同年夏頃에 忠南公州附近에서 出土되었다고 傳하는 바 한짝의 前部가 破損되었으나 原形復元이 容易할 뿐 아니라 鍍金이 거의 全面에 燦然히 남아있는 稀貴한 遺品이다。더욱이 그 形態가 三國期의 古墳出土例와 同式이나 全體에 透刻紋이 彫飾되었고 手法이 매우 洗練 溫雅함에서 注目되었다。

形式은 매우 簡單하다。먼저 亞字紋을 透刻한 二枚의 얇은 銅板으로 身部를 마련하여 그 前額部와 後踵部에서 緣板을 모아 또는 合쳐서 銅線



또는 못으로서 連結 固定시켰으며 下緣에 이르러 底板을 얹도록 안으로 屈曲시켰다。底面에는 菱形紋을 透刻한 一枚板을 이 身部 下端과 銅線으로 連絡시켰고 外底 先後端 가까이 方錐形의 못 五個씩을 작은 못으로 固定시켰다。構造上 매우 軟弱하여 實用의 目的은 아니었을 것이니 他例와 같이 屍身에 쓰이었던 儀式用인 造型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。여름의 「싼달」을 영상시킴이 있듯 短緣部를 除外하고는 整齊한 透刻文이 滿鏤되어 있는 것도 그 作風과 더불어 年代의 降下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三國末의 作品으로 推定하여 둔다。그러므로 羅州 潘南面古墳出土金銅履(註)(國博陳列)와 對比되어야 할 것임을 附言하면서 간단히 紹介함에 그치고자 한다。(一九六三·十二·五記)

長三〇㎝ 高 前部에서九㎝ 後部에서八·二㎝ 幅 前一〇㎝ 後七·三㎝

(註) 梅原末治：羅州潘南面の寶冠(金銅沓實測圖)

(附記) 慶州金冠塚出土飾履身部에 透刻文(「)이 있다(「慶州金冠塚と其遺寶」上冊參照)

康津出土 己酉銘銅鐘

崔 淳 雨

지난 一月初 康津郡 大口面 堂前里에서 出土되어 國立博物館에 所藏된 高麗梵鍾一口를 紹介해 둔다。이 鍾은 總高 一二四·三㎝ 口徑一七·三